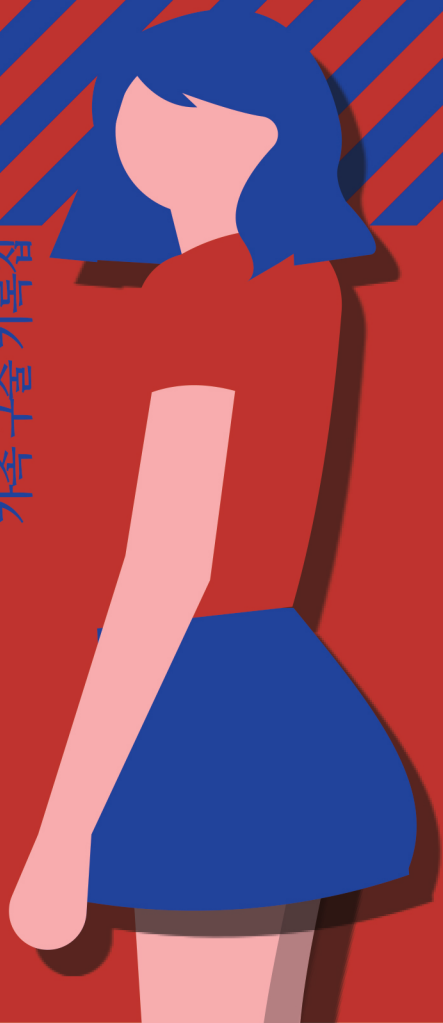


그 사람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조작간첩 피해자
가족 구술 기록집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실천 행동 비전으로 '나눔의 생활화'를 함께 추구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작은변화'는 작지만 큰 변화, 미래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시작을 뜻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작은변화는 단체와 활동가들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수상한집

제주에는 4.3사건 이후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로부터 안전과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조작간첩이란 범죄자가 되었던 이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폭력과 불법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를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어찌면 늘 수상한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은신처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의 수상한 집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인스타그램 @suspicioushouse

홈페이지 www.suspicioushouse.modoo.at

제주도 제주시 도련3길 14-4

064-757-0113



국가폭력 피해자의 가족
구술기록집
그 사람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목차

머리말	- 4 page
민주화 사업회 이야기	- 7 page
구술기록	
- 오영덕	- 10 page
- 송태원	- 26 page
- 박정민	- 37 page
조작간첩 피해자 재심 연혁	- 50 page

머리말

이유도 모른 채 꿈을 접어야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꿈을 접고,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의 꿈을 접어야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그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했고, 부모가 어딘가 생존해 있지만 차마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심정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했고, 낯선 남자의 방문에 이유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화박물관은 우리 사회의 고문피해자, 조작간첩 피해자의 사연을 구술 녹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폭력의 피해가 가족과 공동체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물림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 했

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이야기가 먼 이야기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3명은 30대, 40대, 50대의 자녀입니다. 살아왔던 시대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우리에게 없는 다른 모양의 ‘웅이’가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고민 역시 우리의 고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취업 문제, 육아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은 일반 시민들도 함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다른 ‘웅이’의 모습만을 보며 이들에게 편견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은 연좌제, 취업제한 등의 실제적 차별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구술에 참여한 이들 중 이유도 모른 채 대학진로를 배제당하거나 군대에서 영문도 모른 채 구타를 당했던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피해’가 부모의 국가보안법 ‘전과’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 갖은 노력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공동체와 시간은 결코 돌아오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가해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처벌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과 ‘화해’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습니까? 고문했던 수사관, 기소했던 검사, 조작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과해야 할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듯 숨죽이고 있는 그들 역시 조작간첩피해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 숨 쉬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살고 있을 테지요.

우리는 이번 기획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의 회복이 길고 긴 시간동안 이어져 있음을 알리고,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은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선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숨죽이며 또 다른 악행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평화박물관’에서 앞으로 발간할 ‘반헌법행위자편찬’ 사업은 바로 그러한 이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바로 서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그 날까지 평화박물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외침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965년, 1987년 그리고 2021년

평범한 일반인이 국가 폭력으로 조작 간첩이 된 사례 중 첫 번째 사건은 1965년 제주에서 일어난 ‘민족민주혁명당(오진영 사건) 사건’이다. 당시 64년 도쿄올림픽을 구경하고 온 오진영씨를 간첩으로 만든 사건으로, 재일동포를 간첩으로 조작해 만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1966년에 태어난 오영덕씨는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당시 제주 출신 아버지 오경대씨가 조작 간첩으로 수감되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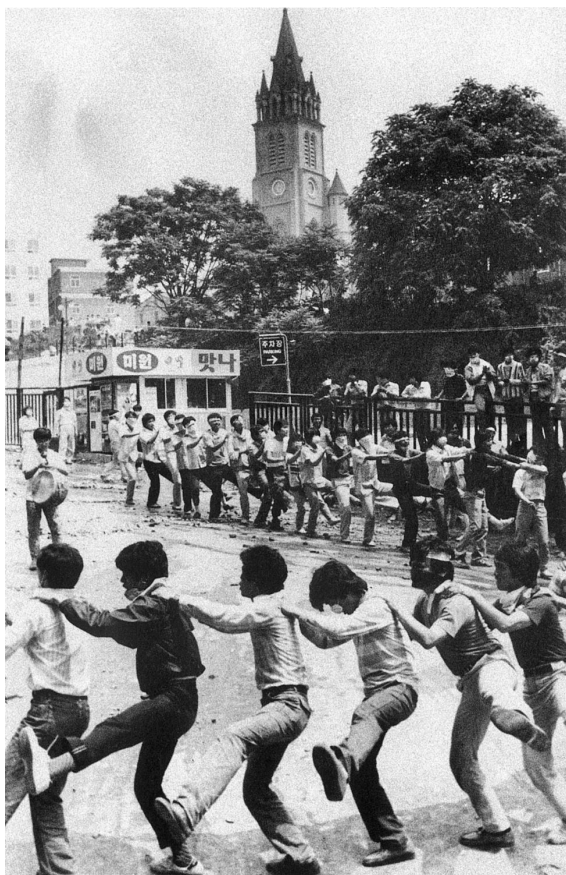
오영덕씨 부친 오경대씨가 간첩으로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 상황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발표 후 계엄령 발표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위기 및 남북대화 등을 빌미로 유신과 계엄령을 발표했다. 유신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민중의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독재체제로 당시 수많은 지식인, 학생,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송태원씨 부친 송우웅씨, 박정민씨 부친 박석주씨가 간첩으로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 상황



1987년 6월11일
시위대 일부가 명동성당 앞 주차장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내고 어깨춤을 추고 있다.

1980년대는 박정희 이후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온 군사정권에 대한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던 시대였다. 전두환 정권은 이같은 민주화 세력을 공산혁명분자로 몰아 공안 통치를 하였고 수많은 음모사건과 항쟁을 낳았다.



1968년대 간첩찾아내기운동

조작 간첩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해방 이후부터 이어져온 반공방첩 사회 분위기가 시대를 거듭할 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유지되어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일명 ‘테러방지법’이 입법되었다. 때문에 조작 간첩 피해자 및 그의 가족이 건강한 일상 생활은 물론, 무죄 재심을 받아내기까지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다.

오영덕

주소 via legione ceccoperi egcremona 이탈리아

연락처 346-061-1621

생년월일 1966.08.25(양 10월9일)

제 호적상에 기재된 출생일은 음력으로 8월 25일입니다. 보통 호적출생일은 양력이고, 생일은 음력인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마도 출생신고를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음력으로 출생신고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기억이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중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라면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기억입니다. 마을에서 항상 저와 놀던 동네 친구들이 어느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다가 나중에 동네에서 놀던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나마 저와 놀던 동네 아이들이 사라지니까 너무 심심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급식빵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받아와서 먹는 걸 보니 너무 부럽더라고요. 당시 제 나이가 7살이었는데도 할머니에게 저도 학교에 보내달라고 떼를 썼죠. 제 나이가 7세였던 데다가 생일도 10월 달이라서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 훨씬 어렸죠. 그래도 할머니에게 학교 보내달라 떼를 썼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학교 보내달라 떼를 쓰고, 그런 손주의 성화에 못이겨 할머니는 학교에 찾아가 무작정 손주를 입학시켜 달라 떼를 쓰셨죠. 다행히 학교에 마을 출신 선생님의 도움으로 결국 다른 아이들 입학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우리 학년이 2개 반이었는데 나이로 보나 입학일로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압도적으로 어리고 늦어져서 제 번호가 가장 끝 번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할머니하고 둘이서 살았어요. 지금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터 그 자리에 할머니와 제가 살던 초가집이 있습니다. 예전 집터 앞에 마을 공동수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늘 저녁 늦게까지 밭일을 하였고, 저는 그런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오시니 날이 늘 어두워졌고, 무서움 때문에 집에서 나와 공동수돗가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특히나 같이 놀던 아이들이들이 저녁 밥 먹으러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아직 오지 않은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공동수돗가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몇 시간이라도 할머니를 기다리다보면 캄캄해져서야 돌아오셨고, 그렇게 할머니가 오셔야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이라 해봐야 보통은 쌀밥이 아니라 대부분 고구마범벅이나 감자범벅이었습니다.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쌀농사가 없고 주로 보리농사를 짓다보니 보릿고개 때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범벅을 많이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왜 우리 할머니는 부드럽고 편안하고 인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같은 경우 제가 아이들과 싸우고 집에 들어오면 나를 끌고 다시 나가서 아이들 가운데 저를 던

저놓고 ‘니들 맘대로 해라’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면돌파하는 스타일이었죠. 제가 어릴 적부터 코피를 자주 흘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병원에 많이 다녔죠. 병원뿐만 아니라 지혈효과가 있다는 생썩을 찢어서 늘 코에다 끼우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도 코피가 자주 나자 하루는 할머니가 코피 나는 대로 그냥 두자고 했어요. 나중에 의사가 알고는 할머니에게 막 야단쳤던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는 어떤 일이든지 하다가 안되면 에둘러가지 않고 정면돌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풀어서 빗질을 한 뒤 비녀를 꽂고, 정한수를 떠 놓고 감옥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비녀가 볼펜깍데기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1909년생이시니까 본인이 환갑의 나이에 저를 도맡아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를 15년간이나 키우는 동안 흰머리 하나 없이 정정하시던 할머니였는데, 교도소에 갇던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일 년도 되지 않아 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제 생각에 아들에게 손자를 인계했다는 안도감이 드는 순간 긴장을 놓아버린 것이 아닐까 해요. 할머니의 목표는 손자를 제대로 키워서 아들에게 인계해야한다는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임감으로 남은 일생을 버티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학교 갈 때 차비가 없어서 차비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면 할머니는 온 동네를 돌며 차비를 빌렸습니다. 시골사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였지만 누구보다 저에게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약간어릴 때부터 생각이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요. 할머니가 동네사람들에게 고개숙이라는 것 말고는 자유롭게

키웠지요. 예를 들면 교복을 입었는데 10일정도 벗지 않고 생활한 적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일체 간섭도 안하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일상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뒷간 가서 똥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아마 똥통 아래에 똥돼지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팔을 오금 사이에 넣고 항상 일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팔이 너무 저린 거야. 스스로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면 불편하구나 하고요. 그런 것이 사실 부모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그런 걸 안가르쳐 주신거죠. 하여튼 뭐 커서도 주변 친구들에 의해 교정된 것이 여러개 있어요. 세수하는 것도 친구들과 M.T가서 교정 받았고, 머릿도 잘 안 감아서 한 달 만에 머리깎으러 가서 머리감는 것이 전부였어요. 평범하지 않은 것이 지금 생각하면 사고의 틀을 정형화 시키지 않은 방법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고의 자유로움이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엄격하셨습니다. 특히 항상 저에게 동네사람들 누구라도 만나면 무조건 먼저 인사해라 하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할머니 말대로 마을사람들을 만나면 늘 인사를 하다보니 동네에서는 늘 착한아이, 모범생이라고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생존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남편도 4.3으로 희생되었고, 아들도 간첩, 빨갱이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 남은 손자를 살리려면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한다고. 생존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 할머니의 요구에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녔지만 제 느낌에 인사를 해도 따뜻하게 받아주거나 대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랄까.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어릴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런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지금도 고향 예래동에 가지 못합니다. 함께 자랐던 마을 친구가 마

을이장을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고향은 가기 싫은 곳입니다. 어린 시절 마을에 대한 기억은 즐거운 기억이라기 보다 부담스럽고 거슬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출소해 고향에 돌아와도 여전히 마을에 가지 않습니다.

태풍을 기다렸어요.

마을에서는 어느 누구도 저와 할머니에게 스스럼없이 대해 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스스럼없이 대해준 분이 바로 고모였습니다. 고모님과 그 고모의 사촌들이 사는 그 집은 언제든 가더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자 저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 고모님 댁에 가면 부러운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 해준다 해도 역시 가족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생기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너무 그리울 때면 차라리 내가 고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라리 고아였다면 고아취급을 당할 텐데 어딘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 처지가 한탄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없지만 어려서부터 집안의 유일한 남자라 챙겨야 할 집안일은 너무도 많았어요. 제사나 명절에 늘 있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명절이라고 놀러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야하는 것이 어린 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도 그것으로 인해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어요. 아버지 역할을 하느라 번잡스러운 일들만 가득했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는, 차갑게 시선이나 느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태풍이 온다면 태풍을 맞고 다녔어요. 제대로 서지도 못할 정도의 강풍에 가슴에 응어리 졌던 것이 날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거센 바람을 맞으면 가슴이 땡 뚫리는 느낌이었죠. 미친 것처럼 부는 태풍에 바람을 맞으며 소리를 지르면 정말 후련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랄도 될 수 없다는 생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죠. 그래서 차라리 시인이 되자고 생각하고 국문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죠. 대학 때는 우리 집안의 과거가 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국가보안법 피해자라고 하니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죠. 대학 때부터 스스로 가졌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려나갔던 것 같아요.

어릴 시절 할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감옥’의 개념은 알지 못했지만 가끔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나중에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교도소’와 ‘감옥’이 다르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하셨던 말은 ‘교도소라는 곳은 죄를 짓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도 저는 참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10년 형을 사는데 아버지는 살인자도 아니면서 왜 1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의 그런 의심이 쌓이고 쌓이면서 사회에 대한 의심으로 확장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의 처지 때문에 친구나 학교에서 별다른 차별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생활하는 습관을 강조하셔서 늘 시키는 것을 벗어나지 않게 사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범생, 사고치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했죠. 한번은 동네 친구가 어디 놀러가려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 허락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영덕이도

같이 간다’고 하자 곧바로 여행을 허락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들에게 오영덕은 착한 아이, 문제 없는 아이라고 인식된 것이죠. 그런 저의 이미지에는 할머니가 일정하게 의도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렇게 살다보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없는 아이의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반대로 저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 고향에 대한 애정은 점점 사라져 갔어요. 지역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졸업한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출입을 하지 않게 되었지요.

*

국문과에 입학하고 나서 시를 써서 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시 문충성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심사를 했는데 그 분이 ‘문지’를 통해서 등단해보지 않겠냐하고 제안을 하더군요. 하지만 당시에 제가 문학상에 응모한 이유는 상금을 타서 학생운동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등단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고의 고민도 안하고 거절했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시의 제목이 ‘줄다리기’라는 시였어요.

그 시를 쓸 때가 마침 대학 체육대회를 하는 때였는데, 당시 체육대회의 핵심은 줄다리기였어요. 줄다리를 보고 있자니 우리 사회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탕하고 화약총을 쏘면 시작되고, 다시 탕하고 화약총을 쏘면 줄다리기가 끝나는 것이 마치 우리 시대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5.16군사쿠데타의 경우도 총과 함께 시작했고, 총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감정을 담아 쓴 시가 당선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등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운 면은 있지만, 살다보니 삶이라는 것이 사람이 약한 존재라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려는 것이 있더라고요. 실제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면 힘들고 불안한 요소는 많지만 역으로 다른 기회에 다 가갈 기회가 많아지는데 말이죠. 살면서 자신을 보호할 요소가 적게 되면 몸은 불편하지만 본질적 문제, 예를 들어 존재라던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가능해 진다고 생각돼요.

몇 해 전이탈리아로 이민을 가게 된것도 한국사회에 대한 한없는 부정적 요소들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한국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경비원에게 갑질 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병적으로 누군가보다 위에 있으면서 늘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욕구가 결국 교육으로 되물림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회를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예 이민을 떠나자고 결심하게 된 것이죠. 떠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관계, 언어같은 당연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일단 언어가 사라지고 알지 못하는 언어를 배워야 하니 제가 아기가 된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에 맞서다보니 새로운 충만함이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어가던 에너지가 새로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건강도 새롭게 회복되더라고요. 예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할 때 유전학 박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외래종을 욕하는데 모두 편견이다. 우리도 해외 나가면 모두 외래종이다. 외래종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외래종이니까 생명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외래종에 비해 토종이 맥을 못 추는 것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활용하는 외래종의 절박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살게 되면 생존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

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를 지켜주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알맹이를 가지고 건강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출소해서 집으로 돌아오셨죠.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사실 출소해서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좀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온다니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아 내가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오니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을 모르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이 없으니까 되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든 마찬가지고. 아버지 입장에서든 갑자기 다 큰 아들이 생긴 거잖아요. 한 번도 정서적으로 자식과 교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다 큰 아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랐던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고 책에서 보고 해서 이해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때가 저는 사춘기 나이였던 때라 아버지와 살짝 안 맞았던 것도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출소해서 처음에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다 늙은 할머니가 아버지 밥을 해주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아내도 없으니 재혼도 고민하고, 생활도 고민하는 입장이었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테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서 조화롭게 정리가 잘 안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학교생활이 주가 되니까 아버지와 이야기할 여유도 없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라 뭔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다룰 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저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잘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일단 아버지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거지.

보안관찰로 아버지를 찾아온 수사관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쑥 나타나서 아주 기분나쁜 웃음을 지으면서 잘 지내냐 하고 별 이야기 없이 그냥 가는데 그게 일종의 유령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와서 섬뜩한 미소만 짓다가 돌아가는데 그게 예고 없이 오는게 아니라 생각 없이 쑥 와서 서에서 왔다가 가면 늘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느낌. 그래서 섬뜩한 유령같았죠. 어디선가 늘 보고 있구나하는 느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이탈리아 가기 전까지 있었어요. 한번은 학창시절에 만원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저 앞쪽에 우리 집에 찾아오는 형사가 탄 거예요. 사람이 짹 차서 형사가 나를 볼리 없을텐데도 저는 그 형사가 나를 알아볼까 겁이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유령 같았죠.

89년도 11월 대학 4학년 때 군대에 갔는데 처음 행정병으로 배치받았다가 수색대로 보직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수색대로 바뀔 때 느낌이 쑥 오더라고요. 남양주 에 있는 사단이었는데 거기서 좀 근무하다가 위병소 관리로 보직이 바뀌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 갑자기 없던 위병소 소대를 따로 만들고 거기서 근무를 시키더라고요. 우리 부대 바로 옆에 보안대가 있었는데 그 보안대장이 툼툼이 와서 잘 지내냐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우리 내무반이 사단본부대 소속 사단본부대원들이 모두 함께 생활하는 내무반이었는데 정보처 근무하는 선임이 하루는 저에게 ‘너 밖에서 무슨 일 했냐. 네가 우리 부대 관심 B급 사병이더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A급은 아예 잡혀가는 대상이고, B급은 군대 내에서 최고의 요주의 인물이라던 군요. 그 말을 들을 때 ‘지금도 아버지와 연관되어 나를 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제 선임하나가 저를 매일 구타했어요. 무슨 구

실을 붙여서라도 매일 구타를 했어요. 여기 어깨에 커다란 수술자국 보이시죠. 이게 구타로 인해 부러져서 수술받은 자국이에요. 지금같으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만한 일이죠.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아버지 영향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병소에서의 근무는 나를 좋았어요. 왜냐면 군인들 출입하는 걸 확인하는데 휴가 다녀오는 사병들 물품 확인해서 압수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안에서는 구하기 힘든 사회서적을 가지고 오는 사병들이 있으면 먼저 압수해서 읽고 돌려주고 했어요. 제 밑으로 다들 방위병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학생운동 하던 친구들이라 그런 책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위병소는 점호도 없고, 군가도 없고, 총도 안 쏘고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정문만 지키다가 제대하는 거였어요.

원래 제대로 대학을 들어갔다면 84학번일텐데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를 가고 싶은 마음에 3수했다가 실패하고 제주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죠. 제가 학교에 입학하니 국문과 서열이 뒤죽박죽되어 버렸어요. 이미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3학년이고, 1년 후배가 2학년이고 하니까 뒤죽박죽되었죠.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사회에 대한 의식이 강해서 학교가면 무조건 학생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입학했어요. 나이도 있는 신입생이 제 발로 운동권을 찾아오니 기존에 학생운동권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잘됐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를 포섭을 했죠. 88년도 연세대에서 8.15통일축전할 때 나를 비롯해 4명인가 결사대를 조직해 용산 미군기지에서 시위하다가 잡혔어요.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구속될 위기였지만 당시 여론이 우호적이라 일주일 후에 석방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운동이 재밌었죠. 학생들 하나하나

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든든하잖아요. 할 맛이 났죠.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느낌이었으니까. 과분하게 지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머물렀던 어떤 것이 해소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존재했죠. 내가 잘못하면 북한하고 연계된다는 스스로의 검열이 늘 있었어요.

귀농운동본부를 알게 됨. 생태적 가치관을 알게 됨. 90년 초반에 귀농운동본부를 알게 되면서 생태적 가치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이유가 사상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생태운동을 통해 지긋지긋한 김일성, 국정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어도 나는 자연과 더불어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 거죠. 그래서 아예 자본주의를 뒤돌아서 가자는 생각으로 시골에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시돌 목장 쪽 중산간 마을이었습니다. 그쪽에 처가가 가지고 있던 빈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전부 수리해서 살기 시작했죠. 그 당시만 해도 평화로가 지금처럼 4차선이 아니라 좁은 2차선이었어요. 제주 사람들에게 이시돌목장은 당시에 강원도 산골 같은 느낌이라 사람들도 잘 안가는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그쪽으로 가서 집을 고치면서 생태생활을 하면서 자연농업해보겠다고 했던 것이죠. 1995년도 결혼해서 1996년도에 큰애를 낳고 이시돌목장 쪽에 들어간 것이 1997년도였어요. 그러면서 생태적 삶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협을 해보자 해서 뭘할까 찾다가 당시 콩나물 파동이 나서 콩나물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사실 생협이라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콩나물을 재배하고 키워야 했죠. 다행히 콩나물 농사가 잘 되어서 소문도 꽤 났어요. 사실 제가 콩나물을 키웠지만 그 전에콩나물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예요. 제가. 그런 제가 처음에 그냥 콩나물을 키우면 제주도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자 해서 따라하면 우리는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향아리에 콩나물 키우면 맛이 좋다는 전통방식이었어요. 돈이 있는 자본들이 향아리콩나물은 안할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잘 되어서 제주도 콩나물 시장을 석권했어요. 거기다 소형풍력발전에 대한 실험을 하고 싶다 해서 실험적으로 소형풍력발전 3킬로와트짜리 풍력발전을 시도했어요. 콩나물에 연결해서 시도했더니 언론에 ‘자연친화적 풍력발전으로 키우는 콩나물’로 소문이 나서 사업이 더 잘 됐어요.

사실 콩나물 재배로 생활은 어느정도 됐는데 콩나물 재배는 제가 원래 꿈꾸던 농사가 아니라 사실 공산품같았어요. 매일 매일 나와서 콩나물을 키우고 마트에 내다 팔아야 했고, 늘 어두운 암실에서 물과 함께 생활하는게 너무 싫었었요. 원래 꿈꾸던 농사는 밭에서 땀 흘리고 흙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콩나물 재배가 마음에 걸렸던 한 가지는 물을 너무 많이 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용했던 물을 재활용해 미나리도 키우고, 미꾸라지도 키워봤지만 결국 물을 쓰게 되고, 흙은 여전히 밟지 못하더라고요.

유야무야 10년 가까이 콩나물재배를 했죠. 사회적 기업으로도 성장했었어요. 생태적 농업이고, 매출도 좋고 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좋아했어요. 막판에 제가 강정해군기지 문제가 생겨서 1년간 그곳에 가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며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엘지그룹에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2년 연속 1등을 하고도 수상직전에 탈락이 됐어요. 이유를 알아보니 청와대에서 대표가 오염덕이라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해군기지를 반대한다고 해서 탈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버지 과거가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 경연대회 탈락 이후로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큰 지원을 받을 생각에 크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탈락되니 투자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결국 같이 일 하던 선배와도 서먹해지고, 기업은 문을 닫게 되었죠.

아내와는 복학해서 같은 과 커플로 만났습니다. 제가 집안 이야기는 다 이야기 했죠. 처갓집에서 반대는 없었어요. 제가 하도 할머니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제가 필요한 분들에게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건 잘해요. 생존을 위해서. 아무 문제없이 결혼했어요. 사실 결혼은 할머니 때문에 한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의 손주를 보고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도 말을 해서 결혼을 했죠. 29살에 했어요.

아버지가 안덕에 있는 밀감 밭을 저더러 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으면 유기농으로 짓는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유기농산물은 모양도 투박하고 볼품이 없어보이니 마음이 차지 않느거죠. 아들을 좀 우습게 본다고 할까? 그렇지만 일단 아버지의 판단도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죠. 사실 저도 이상을 좇는 것 같지만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내가 스스로 서지 않으면 주변 도움은 없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더 현실적인 분이죠. 아버지는 누구도 믿지 않아요. 아버지가 출소 후 20~30년 동안은 아버지와 대화할 때 좀 중요한 이야기다 하면 늘 도청 걱정 때문에 밖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뿌리 깊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민감한 이야기는 마당에 서서 이야기 했어요. 20년간 떨어져 살았지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철저한 생활방식은 똑같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것부터 실수하거나 잘못되는 것을 완전히 틀어막는다는 방식으로 사셨죠.

아버지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면을 봤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87년도에 학원민주화투쟁이 전국적으로 번졌을 때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학생회관을 점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다리에 최루탄 파편이 박혔어요. 당시에 학생처장 차를 타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닐 정도였는데 하루는 목발 짚고 학교생활하는 곳에 아버지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나중에 수십년 시간이 흘러 불구가 되면 남는 건 불구된 네 다리 뿐. 사람들은 지금 널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냐.’고 해서 반항감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꾸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문제제기였어요. 아버지가 가끔씩 저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저의 행동이 단지 순간의 열정인지, 진짜 삶을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 모든 걸 걸고 사는 소신인지 확인하는 듯 해요.

간혹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버지는 아들이 일반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들을 닦달하는 것을 알지만 저는 저대로 또 그런 아버지에 실망하니까 부자시간에 서로 화해가 잘 안되는 거예요. 언젠가 아버지로부터 너의 행동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예레동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고향집에 잘 안 가게 되고 아버지가 속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이탈리아에 이민 가서 동영상으로 제 속마음을 전했어요. 이탈리아에 있어도 아버지는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걸 요구하니까 욕하는 마음에 한번쯤 속상하시더라도 이런 얘기를 꺼냈으면 좋겠다고 보낸 거죠. 저도 힘들

게 살았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것인데 만약 아버지가 재심에서 무죄가 안 되었으면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을 텐데 정말 하늘이 도왔죠. 그 뒤로 아버지와 적극적으로 더 털어내고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뭔가 기회가 되면 아버지와 화해할 구체적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죠.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조금 편안해 진 것 같아요. 지금 조만간 이탈리아로부터 영주비자가 나와요. 영주비자 장점이 이탈리아 밖에서 지내는 기간의 제한이 더 길어져서 자유로워져요. 이탈리아와 제주도를 오가는 조건이 좋아져서 아버지와 더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무죄판결 영향도 있고 해서 예래동에 트라우마가 많이 사라졌어요. 어쩌면 예래동에 살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면 아버지와 예전에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여유롭게 쫓기지 않으며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 그동안의 것을 다 풀어내면서 생활하면 좋겠어요.

송태원

1981년생 6월 8일

녹양초등학교-의정부중학교-의정부고등학교-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00학번)

어릴 때 기억이라면 미군부대 앞에서 호프집을 경영하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함께 운영을 하며 미군들을 상대로 주점을 경영하셨죠. 그런데 아마도 제 교육상 안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몇 년 뒤 그곳을 그만 두시고 의정부 중앙시장 안에서 음악감상실(예림다방)을 운영하셨어요. 한 3년 정도 운영하셨는데, 시장에 오는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음악감상실에 오겠어요. 결국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그것도 접으셨죠. 결국 아버지는 육각수, 자화수 같은 것을 파는 회사에 다니셨어요. 보안법 전과로 인해 아버지가 제대로 된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력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회사에만 들어가셨죠. 가끔 아버지 입에서 지나가는 말로 취업이 잘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릴때라 그때는 사정이 있을 거다라고만 예상했고 특별한 이유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고등학교 때 나에게 ‘사관학교 갈 생각 없지? 넌 어차피 가지 못해’라고 하시길래 ‘갈 생각은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보안법 전과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셨죠. 그때는 보안법을 알았으니까 아버지가 힘들었다고 생각했지 제가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늘 제 앞날 걱정, 취업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예전에 감옥 다녀온 것은 알고 있었어요. 가끔 감옥에 있을 때 제일 인정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무슨 죄로 들어갔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감옥에 같이 있던 분이 신영복 교수라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는 나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책을 사주시겠다고 의정부에서부터 서울 종로서점까지 데리고 다니거나 전 국회의장이었던 문희상 의원 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영특한 아이라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한번은 이화여대 유아교수 전문교수에게 편지를 써서 영특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면 좋겠느냐는 문의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어요.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영재들 교육에 대한 의견도 생기게 되었고, 나중에 청와대에 영재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적어 청원서를 넣었다고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저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보통 학교행사에는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의 경우는 대부분 아버지가 학교에 오셨어요. 저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3때 진학면담을 했는데 담당 교사가 저는 서울대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나봐요. 제가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교실에 오셔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에서 저에게 ‘너 서울대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럼 해봐라고 하시고는 가셨어요. 그럴 정도로 저에 대한 믿음이 크셨던 분이예요.

제가 볼 때 아버지는 다시 태어나도 모시고 싶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 다시 태어나도 난 아버지 자식할래’라고 할 정도로 저 또한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적 경제적으로 생활이 여유로웠던 것도 아니고, 풍족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냥 행복했어요. 제가 뭘 해도 믿어주는 아버지 때문에 행복했죠. 물질적 풍족이 아닌 정신적 풍족이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정부에 있는 송문당 서점 앞에서 봉어빵, 핫도그 같은 걸 파는 노점상을 했으니까요. 철마다 메뉴는 계속 바뀌야 했어요. 더운 한여름에 봉어빵을 팔 수는 없으니 여름에는 크레페 같은 것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매대를 만들어서 아버지 혼자 운영하셨는데 대학 다닐 때 봉천 역 쪽에서 운영하실 때는 학교가 가까우니 학교 끝나고 제가 대신 봐드린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낀 건 그다지 크게 없었어요. 단지 다른 집 아버지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생각은 했어요. 40살에 결혼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전과자라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친척들과는 크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친척 분들은 대부분 부산에 있어서 교류나 왕래가 잘 없었으니까 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중 큰고모가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긴 했어요. 큰고모가 동아대 법대를 다닐 때 아버지가 큰 고모의 법전을 팔아서 서울에 올라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법전 하나 없어졌다고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제법 귀한 책이라서 여러모로 큰고모 앞길이 막히는 건 상상했어요. 아버지 입원하셨거나 장례식 때 오시지 않을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다만 저에게는 전혀 그런 내색 없으셨어요.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조금 풀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관계는 껄끄러워요. 어릴 때는 우리 가족에 대해 다른 친척들이 긴장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심을 하면서 다른 친척들이 가지는 긴장감을 처음 알게 되었죠.

전기공학과를 택한 이유. 남자애들 어릴 때 로봇 좋아하잖

아요. 고등학교 때 수능점수가 잘 나와서 기왕이면 어렸을 때 막연히 동경했던 로봇 관련된 과를 지원해 볼까 했는데 덜컥 합격한 거죠. 막상 입학하고 보니 생각보다 뻑세더라고요. 과 동기가 주로 과학교 출신들이 많아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솔직히 따라가기 벅했어요.

저희 과를 졸업하고 나면 변리사, 삼성 등 대기업이나 국방연구소 같은 곳으로 풀리는 아이들도 많아요. 왜 그런 곳으로 취업하지 않았냐구요? 저도 변리사를 준비했었죠. 1차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 암이 발병했어요. 시험이라는 것이 엄청난 집중을 요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나서는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핑계일 수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집중이 되지 않아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1차 수술 후에 다시 시험 준비를 했는데 결국 1년 만에 재발을 하셔서 다시 시험을 포기했죠. 결국 변리사는 나하고 안 맞나보다 했어요.

물론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볼까도 했죠. 그런데 아버지 병환이 대학 4학년 때 찾아온 터라 전체적으로 공부할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졸업도 해야 하고, 학비나 생활비를 위해서 과외도 해야 하고, 아버지 간호도 해야 해서 교수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겨우 졸업만 했어요. 마지막에 취업서류를 많이 냈는데 에스오일이라는 기업에 합격이 되었어요. 에스오일 전기직에 합격이 되었는데 합격되던 그날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학교 실수로 1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이 안된다는 거예요. 당장 학교로 달려가서 학과장, 교수님 찾아갔죠. 그래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합격이 취소되고 원하던 취업도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불합격된 덕에 아버지 마지막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는게 다행이라고 할까요. 입사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니 아버지가 필담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중에 롯데계열사인 후

지필름에 입사해서 7개월간 일을 했는데 술자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원래 술을 마시지 못해 팀원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결국 회사생활은 술자리에서 결정되는데 그걸 못 버티겠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나 회사동료들이 못해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울리지 못하니 동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을 때라 일에 집중도 되지 않은 이유도 있었어요.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저를 집에 소개하도 하려면 직장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학원강사라도 하라고 해서 학원 강사를 다니게 된 거예요. 첫 학원이 수원 영통에 있는 회사였는데 처음에는 신림에서 수원 영통까지 통근을 했어요. 그때는 일반강사가 아닌 경시대회 강사로 시작했어요. 수강생도 똑똑한 아이들이라 주로 입시목표가 전주 상산고등학교나 영재고 가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그 학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거죠. 학원강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나이도 들고 해서 다시 어디에 다시 취업하기도 애매했어요. 학원강사 벌이도 좋은데다가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적성이 맞는 것 같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학원강사하면서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 받는 지점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부를 할 생각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 ‘무슨 책 보면 공부 잘해요’하고 물어보는 아이들에게요. 노력 없이 그냥 공부 잘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쉽게 말해 벌이가 적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에서 살림하시다 보니 걱정도 많으셨어요.



야금야금 적금 들어놓으면 일 생겨서 적금을 깨야 하는 일이 매번 있었으니까요. 자신한테는 별로 돈을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저희와 같이 살면서 좀 덜 힘들어하시니 다행이에요. 특히 아버지 재심을 시작하면서 재판이 잘 되시면 하고 바라세요. 조급해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고마운 분들 만나서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기다려 보자고 하세요.

어머니는 겉으로 보면 별로 고생하신 것 같지 않으신 얼굴 이에요. 워낙 동안이시기도 하구요. 아버지가 남기신 육아일기보면 어머니가 미군부대 앞에서 술장사하실 때 제가 임신을 했다가 봐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술, 담배에 피임약도 드시고 했나 봐요. 7개월 만에 출산을 하시니까 저를 일주일 동안 안 봤다가 봐요.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다 39살에 저를 낳으신 노산이라 더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그렇게 어렵게 저를 낳으셔서 그런지 어머니는 저 엄청 애뻐하셨어요. 어머니는 자주 저에게 ‘아빠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살았다’는 말을 할 정도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펜팔로 만나셨어요.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오신 다음에 갈 곳이 없으니까 대전에 있는 ‘거룩한 말씀의 수도원’에서 지내셨대요. 수도원에 기거하면서 생활하다가 펜팔로 어머니와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그 수도원에서 하셨어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전과자라는 것을 알고 결혼 하셨을 테지만 저도 지금의 아내와 만날 때 이미 과거 이야기를 다 한 상황이었어요. 연애하기 전에 이미 학원에서 동료로 알고 지낸지가 3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일 뿐만 아니라 제가 한 번 파혼했던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연을 지금 아내에게 다 이야기 했어요.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 대한 기억 중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취업이 되지 않아 고생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노점상을 전전하신 이유도 있고요. 마지막에 아

버지가 암에 걸리신 것도 결국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직장이 아파트 경비원이셨거든요. 교도소에 계실 때 영양실조에 걸려 이가 대부분 빠져 의치를 하고 계셨는데 경비업무 중에 본인 치아가 하나 빠졌나 봐요. 그걸 버리지 않고 틀니에 순간 접착제로 다시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이 발병하고 나서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설암에 걸리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병에 걸리신 그때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마음 붙일 곳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디지털카메라에는 아버지가 막 돌아가신 직후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아버지를 볼 욕심으로 찍었는데 여지껏 한번도 들여다보질 못했어요. 차마 다시 들여다 볼 용기는 안나더라고요.

간첩에 연루된 가족이라 우린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딱히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정말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긴 한데 굳이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사실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 시선이 변해요. 아무래도 이야기하고 나면 측은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 불편해요. 내 스스로는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운이 안 맞았고, 때가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인데 전과자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그렇잖아요.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간첩이나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일을 하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 아버지 전과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재심 때문에 법원 가야될 때는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 재심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아직 주변에서 몰라요. 학원 원장님 빼고는 몰라요. 부산 친척들도 모르니까요. 2심 끝나고 나면 이야기하려고요. 어느 죄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유죄라고 할 때는 크게 떠들고 무죄라고 할 때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살아계셨을 때 무죄 되셨으면 본인 스스로가 위안이 되었을 텐데 돌아가시고 나서 무죄되었다는 그 점이 조금 안타까워요. 누가 무죄인 것을 알아달라는 건 이미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억울한 범죄를 만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본적 없진 않아요. 김구 선생 암살했던 안두희 같은 기사를 볼 때마다 저런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고생한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시나, 가해자들은 저렇게 하고도 잘 사나, 마음이 편할까 하는 생각, 직업적으로 고문하는 일이라 기억도 하지 못하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만약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아버지를 고문했던 수사관들에게 사과라기보다는....음 무죄가 나오면 아버지 묘지에 판결문 들고 갈 때 아버지를 고문했던 사람이 같이 가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아버지가 직접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다 봤고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다 체크했는데 기억하기 싫은 건지 돌아가신 날짜를 자꾸 잊어버려요.

박정민

생년월일 1975. 5. 30

본적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2-8

원래 태어난 곳은 신림동인데 나중에 본적지가 된 곳이 내발산동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 쪽 친척들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갔다는 것 때문에 친구 친척들과 교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렸을 때 기억은 그저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 어디 멀리 외국에 나가 계시다는 것 그 정도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간첩 혐의로 잡혀갔다는 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84년에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실 무렵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와 누나가 따로 살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저희를 외가에 보낸 것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는 재혼하시면서 누나와 저를 대구에

있는 외삼촌 댁에 맡기셨죠. 물론 그때까지 아버지 존재나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우리를 두고 가는구나하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1년 정도 대구에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내발산동으로 다시 이사했어요.



그때도 누나와 단 둘이 살았어요. 서울 내발산동 집은 지하 단칸방이었는데 어머니가 얻어주셨죠. 지하실이라서 습하고 벌레도 많고 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 살았죠. 방이 두 세평 정도 크기였고, 부엌도 따로 없어요. 음식을 해 먹을 때는 방구석에다 ‘부루스타’ 하나 놓고 조리를 했어요. 학교는 기관에서 나오는 지원

을 받아서 다녔어요. 짧은 동사무소에서 다달이 나오는 정부미를 받아서 살았고, 생활비는 스스로 벌려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배달하며 살았어요. 학교 하교 후에는 신문배달하며 지냈죠.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때 누나와 살고 있던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왔다고 해도 멀리 간 건 아니고 같은 동네에 있던 곳에 방을 얻었어요. 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신문사의 방 한 칸이었는데 신문사 사장님이 숙식을 제공 해주셔서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은 조간신문사(조선일보사)라 눈이오나 비가 오나 항상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신문배달을 하고 학교에 갔어요. 누나도 학비 없이 무료로 학교에 다녔던 것 같아요. 누나는 저처럼 별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예배를 나가던 근처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신문사에서 먹고 지내며 일을 했어요.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매우 뿌듯했어요.

학교생활이라면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혼자 있다 보니까 학교 가기는 싫어지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다툼도 많았죠. 제 상황이 그러니까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자격지심에 빠져서 친구들과 자주 다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질 나쁜 청소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그나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로부터 제가 어머니 자식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학교생활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재혼 하신 이후로는 간혹 연락만 하며 지냈는데 한번은 어머니가 저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

가 내게 맡겨서 키운 것 뿐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학교 다니기도 싫어서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부터 학교에 *가다 안가다 했죠*. (안타냈죠.) 다행히 선생님들이 잘 봐주셔서 졸업은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았지만 학교에 소홀해 진 뒤로는 역시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뒤 먹고 살아야 하니 잠깐 일을 했어요. 원래는 군대가 면제인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주민등록증 발급받잖아요. 그때 주민등록증에 '제2국민역'으로 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현역병 대상자가 된거예요. 누나가 일을 하고 있어서 군 면제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21살 때 군에 입대를 했죠. 다행히 공군으로 입대를 해서 군 생활에 여유가 있었어요. 공군은 진짜 여유가 많았어요. 주식회사라고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인복이 좋아서였는지 몰라도 근무하는 부대 중대장이 저를 잘 봐주셨어요. 공군 부대에서는 전기 관련된 일을 담당했는데, 부대 변전실에서 근무하는(직감이라고 부름) 일이었어요. 그곳에서는 3교대로 근무하는데 항상 야간조(22시~06시)를 맡아서 근무하며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는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공군근무 중에 대학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군졸업 후에 대학입시를 다시 봤죠. 처음에는 2년제 대학 전기과를 들어갔어요. 사실 대학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죠. 등록금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니가 등록금을 준다 준다 하면서 결국 주지 않았어요. 결국 등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 다시 4년제 대학시험을 봤고, 학비는 학교 다니면서도 벌었어

요. 어머니는 그 뒤로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누나는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어요. 누나도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가지 못했죠. 제가 살면서 주변이나 종교단체에서 도움 받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저는 ‘우정스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분 덕에 불교방송에도 사연이 나가 모금도 이뤄져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랬죠. 누나 경우는 다니는 교회분들로부터 음식이나 반찬을 받았다고 해요. 쌀은 동사무소에서 매달 나왔어요.

제가 동생 입장으로 보면 누나가 특별히 누나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분명 누나는 누나인데 가족 같은 느낌이 없다고 할까요. 워낙 어릴 때부터 서로 각자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끈끈한 감정이 없어요. 지금도 서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명절이나 그럴 때 한 번씩 만나고, 가끔 서로 가족들끼리 만나 같이 밥 먹는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아버지 제사는 제가 지내는데 누나가 오지는 않아요.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라 제사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매형이 인천 00제강에서 3교대 근무로 용광로 일을 하는데 매형이 일하는 시간에는 누나가 혼자 와야 하는데 누나는 운전면허가 없어 올 수 없을 때가 많죠.

엄마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엄마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엄마와 같이 생활한 것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였어요. 그때까지는 엄마하고 저희에게 잘 해주어서 서로 잘 지냈죠. 다른 집 아이들처럼 엄마와 함께 지내는 행복한 가족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항상 일을 나가셨어요. 엄마가 출근하면 누나와 나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지 매일 놀러 나갔어요. 우리 살던 동네가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 나오는 동네 같았거든요. 길게 늘어선 골목길에서 동네 아이들과 모두 친하게 놀며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재혼하신다며 한 남자분과 집에 오셨어요. 그날 우리에게 ‘이제 엄마는 저분이랑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우리 남매를 대구 외삼촌 집으로 보냈죠. 그런데 대구 외삼촌 집에서 지낼 때 누나가 사촌 형한테 성추행을 많이 당했어요. 결국 1년 정도 지나서 엄마에게 외삼촌 집에서 살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죠. 더부살이가 쉽지 않았던 거죠. 결국 엄마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지하 단칸방을 얻어줬어요. 엄마가 집은 얻어 줬지만 생활비를 대주지는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들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어요. 누나도 엄마를 싫어하고, 저도 엄마를 싫어하게 됐어요. 저희 남매는 스스로 방치를 선택했어요. 엄마와 가능하면 엮이고 싶지 않아서 방치를 선택했다고 할까요. 제가 결혼할 때 엄마가 오기는 했는데 그야말로 얼굴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제 결혼식장에 들어오지도 않으셔서 부모님 자리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앉으셨죠.

아내와는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회사도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회사다니면서 강서 인라인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했어요. 아내를 만날 당시에는 제가 동호회 회장이었어요. 아내가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인라인 타다가 글썽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깁스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쳐서 아내가 완치될 때까지 제가 까치산에 사는 아내를 출퇴근 시켜줬죠.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결국 마음이 통했죠. 제가 31살 되던 해에 결혼했어요. 그때 아내가 27살 때였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일찍 결혼한 셈이지요.

제가 어릴 때 가족과 많이 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동안은 아내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자 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가면서 가고 하면서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결혼하자고 마음먹었을 때 아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참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고맙죠. 지금도 뭐라고 하면 ‘알았어 다 이해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아내한테 늘 고맙죠. 지금은 일 안 다녀요. 아내는 일을 나가고 싶어하지만 아직 애들도 어려서 엄마가 같이 있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혼자 벌어도 가정을 이 끌어갈만하기도 하고요.

처갓집에 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였는지 처음에 처갓집에 결혼 때문에 찾아갔을 때는 좀 미움을 받았어요.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는 예쁜 딸 데려가는데 집안도 별로이고, 부모님도 없고, 누나 하나있는 고아나 다름없는 그런 집안사람이라고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물론 대놓고 반대라고는 안하셨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싫은 소리도 좀 하시고 그랬어요. 처갓집 가면 저 들으라고 부모도 없는 사람 이런 말을 하시는데 아직도 그 말이 가슴에 남아 있어요.

아버지는 74년도 10월에 보안대에 잡혀가셨어요. 저야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기억에도 없지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도 20대가 되어서나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미국에 갔다고 늘 엄마가 말을 했거든요. 저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어머니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지 않았고, 외가 쪽 친척들도 이야기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싫었어요.



엄마가 친가 쪽 친척들과 거리를 둔 이유가 돈문제라는 말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84년도에 교도소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보상금을 엄마가 받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친가 쪽 친

척들이 다 가져갔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쪽이 사실이든 엄마와 친가 쪽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확해요.

저희는 친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명절 때는 집에 있거나 하고, 방학 때는 이모네 집에 가고는 했죠. 친가 쪽에는 교류가 아예 없어서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가 쪽하고 교류를 잘 하고 있어요. 저희 친할아버지 쪽 자녀가 7~8명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명절이나 친척 모임에 가보면 친척들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친가 쪽 친척들을 만난 것도 어렵게 만나게 되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좀 높은 자리에 계셨나봐요. 그래서 아마도 제 주민등록지를 찾아보셨나보더라고요. 작은 아버지가 제가 사는 곳을 알아내셔서 저에게 편지를 하셨어요. 그게 21살때인가 그랬어요. 충격이었죠. 누나도 그때 친가 친척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때 아버지 일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무슨 일로 교도소로 가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아버지 산소도 찾아보았어요. 처음 친가 쪽 친척들을 만나던 날이 기억나요. 저희 집안사람들이 순창에 있는데, 전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역에 딱 내리니까 그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식당을 통째로 빌리셨더라고요. 갔는데 정민이 왔다고 하면서 식당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친척들 다 모여서 반겨주고, 같이 밥 먹으며 잔치했던 기억이 나요. 친가 쪽 친척들은 다 반겨주셨어요. 가족이라는 느낌을 처음 느꼈어요.

누나도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혼자 살다보니까 어디 연이기가 싫은 거죠. 저는 굉장히 활동적인데 누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친척들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나 누나 결혼할 때 친가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다 오셨어요.

우리 집안일에 대해 매형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돈어른이 4.19민주화유공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누나를 좋게 보지는 않죠. 누나는 고아에 집안도 형편없지만, 사돈어른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은 잘났다고 여겨지잖아요. 결혼할 때 그런게 있더라고요. 부모가 없다는 것 그 편견이 좀 심했어요.

아빠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아쉬운 점이려면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텐데 하는 정도예요. 전라도 순창이 아버지 사시던 곳이에요. 아버지는 그곳 선산에 모셔졌더라고요. 선산에는 명절 때마다 가죠. 처갓집이 순천이라 오고 가는 길에 들려요. 항상 제초할 때도 들리고 그러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어요. 아버지 사진 몇 장 있는 것이 전부예요. 아버지가 간첩인 걸 잘 모르기도 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부산 고모 아들이 경찰대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신원조회에서 걸렸다는 말은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 일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든건 없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출소 했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보호관찰한다고 감시가 심했을 텐데 출소 전 감옥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도소 밖으로 기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연좌제 영향을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공공기관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장관표창을 두 번 받았는데 이상 없이 나오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보니 아버지 때문에 일 지장 받은 적이 있네요. 제가 공군에 있을 때 성남공항에 나갔어요. 공항관리대를 가고 싶어서 거길 지원했다 떨어졌어요. 공항관리대는 대통령 전용기 등

을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서 탈락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버지 일 때문에 못 갔다고 생각한 거죠. 공군은 성적순이라 성적순으로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제가 성적이 좋았던 걸 알았기 때문에 떨어진 이유는 신원조회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

그 전에도 꾸준히 재심을 하려고 했어요. 2007년도에도 중앙지검 자료 받아서 사진을 다 찍어서 재심을 준비했죠. 아버지 하고 같이 잡혔던 박기래 씨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기래 씨는 재심이 힘들거라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재심을 준비하려고 이리저리 준비해봤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고 말해주는 변호사도 없고 해서 그때는 포기했다가 최근에 다시 준비하게 되었죠.

재심을 왜 하려느냐 하면 아이들 때문이에요. 전 결혼했잖아요. 제가 간첩의 아들이니 제 아들딸은 간첩 손자손녀가 되는 셈이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간첩의 자식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우리 아들딸에게 대물림 된다는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재심을 시작하게 됐죠. 재심 가능성이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래도 살면서 후회는 안 남아야 하잖아요.

주변에서 저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제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하질 않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편견은 있겠죠. 굳이 그걸 이야기해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들 저에 대한 편견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간첩이 간첩인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간첩, 저런 행동이 간첩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김구 선생이 간첩인가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되면 다시 평가가 될거잖아요. 미래에

통일이 된다면 걱정이 안되고, 세상도 많이 바뀌어서 편견은 없을 텐데 . 많이 아쉬운 거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드라마나 영화, 서울시 공무원 사건 등이 나오면 민감하죠. 주변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요. 저는 진보라고요. 평소에 스스로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생각했고, 주변에도 적극 알려요. 제 앞에서 보수적인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인지 제 앞에서는 정치, 간첩이야기 안 해요. 제가 진성 빨갱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진보적인 것이 좋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옳고 그름은 당연히 구분하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간첩이라는 건 언론이나 기사에 종종 나오는데 통일되든, 안되든 남한과 북한은 계속 협력해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협력해서 같이 잘사는 나라.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같기도 하고, 통일이 될 듯 될듯 안 되네요. 정치인들이 이념의 편견을 벗겨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편견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순 사건명	피고인	발생년	재심법원	재심판결일	재심 사건번호	무죄확정	무죄 사유
1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사건	최복남	1971	대법 대법	2013-01-24 2011-05-26	2010도14282(최복남) 2010도17458(김복재)	○	
2 남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박월림	1972	대법	2012-05-09	2012도627	○	불법체포 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
3 남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정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성학/ 이정일	1973	광주고법	2012-05-24	2012노31	○	불법구금, 가혹행위
4 김장현 등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김장현	1973	대법	2011-12-22	2011도6879	○	
6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성희	1974	대법	2014-12-11		○	
7 인민혁명당 사건	인혁당	1974	서울중앙지법	2007-01-23		○	
9 김우철형제 간첩조작의혹 사건	김우철 등	1975	광주고법	2010-01-28	2009재노14	○	
10 재일동포 강종현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강종현	1975	대법	2015-08-21		○	
11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사건	김동휘	1975	대법	2012-05-24	2012도708	○	
12 남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이남	1976	대법	2011-02-13	2013도9577	○	
13 재일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정사	1977	대법 대법	2012-05-10 2013-05-09	2012도529 2011도13603	○	
14 안장영, 안희천 사건(미법도)	안장영 등	1977	대법	2013-11-28	2013도7725	○	
15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추백	1977	서울고법	2014-12-19		X(불확실)	
16 남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강대광/ 백옥길/ 이용술/ 김영석/ 김근영/ 이일남	1978	전주지법정읍 지원	2008-07-09	2007재고합2	○	불법구금, 고문 등 가 혹행위
18 삼척 간첩단 사건	김순자 등	1979	춘천지법	2015-04-10		X(재심중)	
19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신귀영 등	1980	부산지법	2009-08-21	2007재고합3	○	
20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석달윤 등	1980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2009-01-22 2011-02-24	2008재고합9 2010도10097	○	
21 정춘상 사건	정춘상 등	1980	-	-	-	x(재심前, 도원1호)	
22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기삼	1980	광주고법	2009-10-22	2008재노4	○	
23 김태홍 사건	김태홍 등	1981	-	-	-	x(재심중)	
25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박동운 등	1981	서울고법	2009-11-13	2007재노5	○	
26 남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강경하/ 이성국/ 박정길	1981	대법	2013-06-27	2011도7931	○	불법구금, 가혹행위
27 홍선길 사건	홍선길	1981	대법	-	-	○(당시 무 죄)	

28	김장길 사건	김장길	1981	대법	2012-05-10	2011도17717	○	
29	홍제화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홍제화	1981	-	-	-	x(정보 부족)	
30	나진 나수연 사건	나진	1981	대법	2014-06-26	2014도1787	○	
31	황용윤 사건	황용윤	1982	-	-	-	x(정보 부족)	
32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영일/ 최정원/ 강문	1982	대법	2012-05-24	2012도579	○	불법구금, 가혹행위
33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차풍길	1982	서울중앙지법	2008-07-31	2007재고합23	○	
34	송씨 일가 간첩사건	송씨	1982	서울고법	2009-08-28	2008재노1	○	
35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이종수	1982	서울고법	2010-07-15	2009재노42	○	
36	재일조총련관련 최양준 간첩조작의혹 사건	최양준	1982	대법	2011-03-24	2010도6264	○	
37	김준보 사건	김준보	1982	대구지법	-	-	○(당시 무죄)	
38	오송회 사건	이광웅	1983	광주고법	2008-11-25	2007재노2	○	
39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사건	오주석	1983	대법	2010-10-28	2010도8927	○	
40	곽종대, 김해봉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곽종대 등	1983	대법	2012-03-29	2012도643	○	
41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상순	1983	대법	2011-01-27	2010도2918	○	
42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정영	1983	대법 / 서울고법(정진영)	2011. 1. 13 2013.12.24 (정진영)	2010도9640 2012재노68(정진영)	○	불법구금, 가혹행위
43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박박	1983	대법	2012-05-24	2012도528	○	
44	납북귀환 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상철	1983	대법	2012-12-26	2012도10230	○	불법구금, 가혹행위
46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고창표	1983	대법	2012-11-29		○	
47	함주명 사건	함주명	1983	서울고법	2005-07-15	2000재노16	○	
48	서경윤 간첩조작 의혹 사건	서경윤	1984	해군보통군사법원	2013-12-31		x(재심중)	
49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서창덕	1984	전주지법군산지원	2008-10-31	2008재고합1	○	불법구금, 가혹행위
50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장형	1984	서울중앙지법	2008-12-19	2008재고합13	○	
51	조봉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조봉수	1984	대법	2013-09-12	2013도811	○	

52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조일지	1984	서울고법	2012-09-27	2012노1438	○	
53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현 간첩조작 의혹 사건	윤정현	1984	대법	2011-11-10	2011도4295	○	
54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	홍종열 등	1985	대법 대법	2012-11-29 2012-04-26	2010도11788(홍종열) 2011도17806(변두갑)	○	
55	류한기 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류한기	1985	대법	2012-05-24	2011도16368	○	
56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정삼근	1985	광주고법전주재판부	2009-01-23	2008재노1	○	불법구금, 가혹행위
57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이병규	1985	대법	2012-04-26	2011도16210	○	불법구금, 가혹행위
58	재일동포 유지길 인권침해 사건	유지길	1985	-	-	-	○(당시 불기소)	
59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이준호 등	1985	서울고법	2009-07-10	2007재노28	○	
60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구명서	1985	대법	2011-04-14	2010도15128	○	
61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양기	1986	광주고법	2009-07-30	2008재노1	○	
62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조작 의혹 사건	구명우	1986	대법	2011-12-22	2011도11517	○	
63	여덕현 사건	여덕현	1986	-	-	-	○(당시 무죄)	
64	심한식 사건	심한식	1986	-	-	-	○(당시 무죄)	
65	김순일 사건	김수일	1986	대법	2015-08-19		○	
67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철우	1989	대법	2012-07-26	2010도3401	○	
68	인민혁명당사건	도예중 박현재 정도영 김영광 김금수 이재문 임창순 김한덕 김병태 김경희 전무배 박중기 양춘우	1965	서울고법	2013-10-9	2011재노51	○	불법감금,고문
69	80년 사복사건	이원갑 / 신경	1980	서울고법	2/62015	2010재노13	○	불법감금,고문
70	강기훈 유서대필의혹사건	강기훈	1991	서울고법	9/15/2009	2008재노20	○	
71	김연기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김연기	1982	서울지법	4/14/2014	2013재고단3	○	불법감금,고문
72		전재흥	1951	대전지법	6/15/2012	2011재고합1	○	고문
73	진보당 조봉암 사건	조봉암	1956	대법	10/29/2010	2008재도11		불법감금
74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심문규	1959	서울지법	6/13/2012	2011재고합14		불법감금 증거위조, 허위공문서작성
75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의혹사건	김종옥, 홍복동	1951	전주지법	8/24/2011	2009재고합2		불법구금, 고문

76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백원기 / 박봉기/ 박순필/ 박창덕/ 박남용/ 박만복/박준용/ 이영복 /이의철/허사만/이상남/한동휘/한경택/박소순/민정식/김재한/문정희/김영식/박흥덕/김귀례/최춘례	1984	서울지법	11/29/2011	2009 재고단3		불법체포, 가혹행위
77		배경옥 김세준	1969	서울고법	12/19/2008	2005재노20 2007재노2	○	불법감금,고문
78	춘천강간살인 조작의혹사건	정원섭	1972	춘천지법	7/14/2008	2008재고합1	○	고문,증거조작
80		김용준	1975	전주지법	1/21/2009	2008재고합2	○	불법구금, 가혹행위
81		노준현 / 박현옥 / 이영송 / 안길정 / 박병기 / 신일섭 / 김경천	1978	광주지법	11-8-2012	2011재고합32		불법구금, 고문
82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사건	이영근	1980	광주고법	11-12-2009	2008제노5		불법구금, 가혹행위
86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사건	이태복 이선근 박문식 이덕희 홍영희 윤성구 민병두 최경환 김진철 손형민 이종구 양승조 신철영 최규엽 정경연 오상석 엄주용 김철수 송영인 노숙영 박태연 김병구 유해우	1981	서울고법	8/13/2010	2009재노81		불법구금,고문
88	납북귀환어부 백남옥 외 5명 간첩조작의혹사건	백남옥/ 백남중 / 백운만/ 백중인/ 백중철/ 김순애	1968	광주고법-백남옥/ 백운만/ 백중인/ 백남중/ 백중철 전주지법-김순애	2010/2/4 2009/2/4	2009재노1 2008재고합1	0	불법구금, 가혹행위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89		이곤	1984	서울고법	9/22/2011	2011재노79	○	불법구금, 고문
90		이재두	1986	서울고법	9-1-2010	2010재노34	○	불법구금, 고문
91	태영호납북사건	정몽치/ 강대환/ 박헌태/ 박상용/ 이종섭 박종윤	1968	전주지법 청음지원	2008-7-9	2007재고단2/3/4	○	
92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박준환/ 유명록/ 임봉택	1972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0/ 6/ 18	2009재고합2	○	불법구금, 가혹행위
93	월북자자 가족 간첩사건- 송씨 일가 간첩 사건	송지섭 / 송기준 / 한광수 / 송기복/ 송기홍 송기수 한용수	1982	서울고법	2009-2-12	2008재노1 2009재노2	○	불법구금, 가혹행위
94	심진구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심진구	1987	서울지법	2011-12-16	2010재고단26	○	불법구금, 가혹행위
95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김봉규	1968	서울고법	2010-10-29	2009재노76	○	불법구금, 가혹행위
96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관련 사건	최상원	1972	대구고법	2010-5-10	2009재노17	○	불법구금, 가혹행위
97	문인간첩단사건	이호철	1974	서울지법	201012/14	2010재노33	○	불법구금, 가혹행위
99		정정자	1981	수원지법	2014-5-1	2014재노2	○	불법구금, 가혹행위
100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1981	부산지법	2013-2-27	2012재노18	○	불법구금, 가혹행위

112	김익순, 김금성, 정완교, 홍대성	1970	서울고법	2014-8-21	2011재노93	○	불법구금, 가혹행위
113	이강주	1971	전주지법	2013-2-18	2011재고합3	○	불법구금
114	백윤충	1974	전주지법	2013-2-18	2011재고합4	○	불법구금
115	정규용	1976	인천지법	2012-12-26	2011재고합1	○	불법감금, 가혹행위
116	이길부, 송기철, 김광욱, 송기태	1976	광주고법	2013-11-28	2011재노2	○	불법구금, 가혹행위
117	안희천, 송옥임	1977	인천지법	2013-2-19	2011재고합2	○	불법구금, 가혹행위
118 박우용 사건	박우용	1978	강릉지원	2013-7-4	2011재고합1	○	불법구금, 가혹행위
119 김춘삼 사건	김춘삼	1983	속초지원	2013-1-8	2011재고단1	○	불법구금, 가혹행위
120 김용태 사건	김용태	1984	서울고법	2014-1-10	2011재노55	○	불법구금, 가혹행위
121	조득훈	1976	서울고법	2014-6-19	2014재노7	○	불법구금, 가혹행위
122	이동석	1972	서울고법	2012-09-07	2011재노13	○	불법구금, 가혹행위
124	김종태	1975	서울지법	20120203	2011재고합16	○	불법구금, 가혹행위
125	강종건	1975	서울고법	20120925	2011재노74	○	불법구금, 가혹행위
126	박영식	1982	서울지법	20130405	2011재고합51	○	불법구금, 가혹행위
127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사건	오진영	1965	서울지법	20120223	2010재고합17	○	불법구금, 가혹행위
128 오성재 사건	오성재	1974	서울지법	20130926	2013재고합28	○	불법구금, 가혹행위
129 강희철	강희철	1986	제주지법	20060614	2005재고합2	○	불법구금, 가혹행위
130	김순일	1987	서울고법	20140220	2013재노29	○	불법구금, 가혹행위
131	이동기	1988	서울고법	20141017	2014재노4	○	가혹행위
132 김용담	김용담	1971					
133 양한병	양한병 양동우	1971	서울고법	20130909	2011재노155	○	불법구금, 가혹행위
134 김평강	김평강 허간희	1981	광주고법	20141008	2012재노8	○	불법구금, 가혹행위
135	전영관 전영봉 손두의 전국술 전서봉 전석봉 정의출 이사영 이지영 최규식 유창열	1974	서울고법	20120614	2010재노83	○	불법구금, 가혹행위
136	김용희 전성술 전연순 전경술 이한식	1974	서울지법	20140212	2010재고합38		불법구금, 가혹행위
137	이태영	1974	서울고법	20140603	2014재노13	○	불법구금, 가혹행위
138	홍봉훈	1974	서울고법	20140603	2014재노25		불법구금, 가혹행위

139	유럽일본간첩사건(김규남, 박노수, 임문준 등)	임문준	1969	서울고법	2012코42
140		오재선	1986	제주지법	2015재고합1
141		강광보	1986	제주지법	2013재고합1
142		김규남	1969	서울고법	2009재노78
143		김상원	1982	서울지법	2011재고합42
144		배일규	1979	서울고법	2011재노137
145		김흥수	1978	서울고법	2011재노144
146		박순애	1977	대법원	2012도9879
147		이양일	1968	군산지법	2013재고단5
148		고희박	1973	서울지법	2014재고단14
149		김삼석 김은주	1993	서울고법	2014재노26
150		송기철	1976	광주고법	2014재노3
151		최건석	1969	대구지법	2014재노3
152		임종영	1969	서울고법	2014재노41
153		김태주	1968	제주지법	2015재고단1
154		김성덕	1969	홍성지원	2015재고합1
155		최순복	1969	서울고법	2015재노7
156		정중희	1980	서울고법	2016재노210
157		정정학	1971	서울고법	2016재노72

국가폭력 피해자의 가족 구술기록집
그 사람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발행인. 사해 출판사
발행처. 사해 출판사
발행일. 2021년 3월 22일

기획. 수상한집
진행 및 편집. 수상한집, 사해 출판사
디자인. 사해 출판사
인터뷰. 오영덕, 송태원, 박정민

사진제공. 송태원, 박정민
자료제공. 한겨레신문사, 국가기록원

ISBN.

가격.
10,000원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책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이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해당 유족들과 구술 당사자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구술 당사자와 사해 출판사, 수상한집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021 Sahey Publisher.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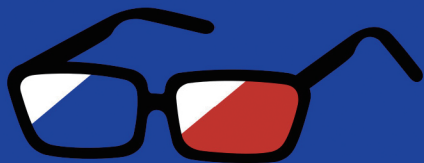


사해

사해

‘사해’는 부유하는 생각의 바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부유하는 바다(思海)가 있다는 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해(死海)에서 모든 것들이 물 위로 떠오르듯, 무중력과 같은 상태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생각과 언어들을 모아 바다를 이루게 하는 책을 만듭니다.

인스타그램 @quarterly.writers
카카오채널 사해 (alliswriters)
이메일 주소 all.is.writers@gmail.com



그 사람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고문이란

X

 아름다운재단

고문이라는 폭력 앞에 일상과 공동체가 모두 파괴된 국가 폭력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문 피해자의 가족들, 2세들의 구술기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과 편견에 맞서 살아가는 이웃들을 만납니다.